

작곡가 하이든의 삶을 통한 대학생들의 인성교육

오세홍

한남대학교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교수

Character Education of College Students through the Life of Composer, Joseph Haydn

Sehong Oh

Professor, Talmage Liberal Arts College, Hanna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제4차 혁명시대의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는 '인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성교육의 다양한 방법 중 작곡가 하이든의 삶과 그의 음악을 통한 교수방법의 접근과 수업활동으로 음악과 인성의 융합교육을 통해 인성덕목의 인식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연구 가설과 인성 덕목의 하위요소들의 사전, 사후 인식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총 6회에 걸친 하이든의 삶과 음악을 활용한 수업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이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인성교육 덕목 전체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p < 0.01$)를 가져왔고 인성덕목의 하위 요소인 친절, 관용, 책임, 신뢰, 사랑, 배려, 지도력 그리고 공동체의식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p < 0.01$)를 가져왔다. 한 작곡가의 삶과 음악을 통한 활동 중심 수업은 효과적인 인성교육의 결과로 연구의 가치가 있었다. 향후 보다 광범위한 연구대상을 통해 다양한 교수활동 적용으로 심화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주제어 : 제4차 혁명시대, 융합교육, 작곡가의 삶과 음악, 활동중심 수업, 교수활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haracter', which is an important keyword in the era of the 4th revolution, and to approach the teaching method through the life of Haydn and his music among various methods of character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search hypothesis that the convergence education of music and character brings positive changes in pre- and post-recognition of sub-elements of character virtues. As a research method, character education was conducted through class activities using Haydn's life and music for a total of 6 times. The result shows the change in pre- and post-cognition of sub-elements of personality virtues,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1$) in all virtues of character education. Activity-oriented classes through the life and music of a composer were worthy for the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A further study would be meaningful by applying various teaching activities if the scope of study is expanded.

Key Words : The 4th revolution, convergence education, the life and music of a composer, activity-oriented classes, teaching activities

*Corresponding Author : Sehong Oh(kingbossam@gmail.com)

Received September 17, 2021

Accepted November 20, 2021

Revised October 12, 2021

Published November 28, 2021

1. 서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여러 국가와 함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고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졌다. 하지만, 한 국가를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만드는 일은 비단 표면적인 ‘가치’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 내면의 양상을 보면 외형적 성공이 주는 풍요가 우리의 내면까지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오늘날의 사회현실이 대변하고 있다. 요즘 현대인들은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세상의 고등지식을 습득하고 수많은 스펙을 쌓아서 자신의 재능을 어필하고 타인보다 뛰어난 점을 부각하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입사한 후에는 소속된 단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회성의 결여와 더불어 사람 간의 관계에서 풍기는 인간적인 체취가 메말라 있다는 이야기다[1]. 외형적 스펙만이 아닌 내적인 “정서적인 측면” 또한 하나의 스펙으로 고려해야 함을 인식하게 하는 부분이다. 그리하여 교육부는 1995년에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정서’교육을 편성하였고 2009년에 ‘개정 교육과정’의 창설 ‘인성교육’을, 2012년에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인성교육’, 그리고 마침내 2015년에는 ‘인성교육진흥법’ 제정(制定)에까지 이르렀다[2].

이 같은 시각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양의 교과목으로서 ‘음악’이 인성교육에 주는 의미와 그 유익의 고찰과 함께, 특히 명성 있는 음악의 대가로 성장해온 위대한 음악가 하이든(Joseph Haydn, 1732-1809)의 삶과 인성을 조명해 볼 것이다. 그는 어릴 적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홀로 공동체생활을 하며 슬한 시련과 역경을 겪었지만, 음악이 주는 위로와 정서적 안정감이 하이든의 내면 세계에 영향을 주었고 이를 토대로 많은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러한 하이든의 인성을 통해 대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더불어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올바른 인재 상을 갖도록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본 연구가 가치 있을 것으로 본다. 내적인 부분으로서 음악은 다른 예술들의 특성과는 달리 ‘청각’에 의한 의존도가 높아서 작곡가의 음악을 귀로 ‘들을 때’ 그의 의도가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전해진다[2]. 작곡가의 삶과 애환에서 표현되는 감정 즉, 기쁨과 즐거움, 충동과 격정적인 느낌들이 직접적으로 인간의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매우 인상 깊게 각인이 되고 인간의 감정에 깊이 스며들게 된다[3].

제4차 혁명시대의 핵심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키워드

중 하나인 인성교육은 학교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 위대한 작곡자의 음악과 그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그의 작곡 의도를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명성 있는 음악의 대가로 성장해온 인생의 전 과정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탐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대학 교양과목으로서의 음악교육은 인성교육 덕목의 인식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 2) 대학 교양과목으로서의 음악교육은 인성교육 덕목의 하위 영역(친절, 관용, 책임, 신뢰, 사랑, 배려, 지도력 그리고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준다.

2. 이론적 배경

2.1 인성교육

인성이란 보편적으로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면 그 사람을 보통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인성의 사전적 의미를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사람의 성품’ 혹은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성품이 형성된 대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가?

미국의 인성교육 학자 마빈 베르크비츠(Marvin Berkowitz)는 사람이 인간의 도덕적 자아를 모든 면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의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한다[4]. 또 다른 미국의 인성학자 토마스 리코나(Thomas Lickona)도 인성교육은 선한 인간의 자아를 성장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라고 언급하고 있다[4]. 또한, 터키의 인성학자 쯔할 쿠부슈(Zühal ÇUBUKÇU)는 인성교육은 인간에게 자신감과 책임감을 길러줌으로써 선한 시민상을 만드는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설명한다[5]. 이러한 관점에서 인성교육은 그룹 공동체 속에서 생활해 가는데 필요한 사고와 분별력 그리고 도덕적 가치와 행동, 성품들이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음악이 주는 이상적인 대학 인성교육은 무엇일까?

2.2 음악과 인성의 상관관계

인문학의 하위 갈래이면서 현재까지 인류와 함께해 온 문화적 산물인 ‘음악’은 인성교육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교육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 교육론의 저자 윤성원 박사는 인본주의 심리학적 접근으로서의 음악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음악은 인간의 심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신비한 힘이 있고, 인간의 심성과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음악의 본질은 인간주의 심리학이 추구하는 학습의 방향에 부합함. 음악교육은 앎(knowing), 느낌(feeling), 행함(doing)을 통하여 자신과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제공함. 이를 통해 자아에 대한 내적 정체감(self-identity)과 타인에 대한 이해(inter-personal understanding)를 높이게 된다.”[6]

이처럼 정서적 영역에 있어서 음악은 감정적 언어로서 자신의 느낌과 감정, 억압된 에너지 등을 표현하고 탐색하는 능력을 촉진하도록 도움을 주며, 사회적 영역으로서는 긍정적인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해주면서 적절한 상호관계 형성의 기술과 타인과의 교류에 필요한 관계적 기술을 강화해준다는 점에서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의 효율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7]. 이러한 음악을 통하여 학생들은 음악의 외적인 부분으로서, 삶의 질의 향상과 더불어 조화로운 인격체로서의 전인(全人)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2.3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7가지 즉, 존중, 신뢰, 책임, 배려, 공정성, 시민성, 심미성이다. 이 7가지 특징을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인성교육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내면의 인격을 다지는 존중, 신뢰, 책임, 배려의 관점이다. 둘째는 자기 자신을 넘어 타인과 공동체와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공정성과 시민성의 관점이다[8].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위대한 음악가 하이든의 삶과 시대 상황 그리고 그의 대표곡에 대한 배경 지식등을 교육하고 하이든의 음악 인생의 과정 가운데 드러난 그의 ‘인성’을 고찰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지성, 감성 및 인성 등 전인격적인 변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9].

둘째, 음악 인성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규칙, 동료 의식, 사회성, 그리고 존경심을 가질 수 있다[10]. 다양한 음악 분야 중 ‘합창음악’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통일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결집력이 필요한 분야다. 자신의 소리보다 옆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화음을 이루

어가는 과정에서 단원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감과 협동심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에도 도움이 된다[7].

2.4 하이든과 인성

작곡가 하이든이야말로 부모의 지대한 영향력을 받은 대표적인 음악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든의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면 늘 동네 이웃들과 함께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다. 음악과 함께 하는 이러한 일상은 어렵고 힘든 하루 속에서도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는 힘이자 원동력이었다. 또한, 원만한 교우관계와 좋은 사회성을 가진 아버지를 보고 자란 하이든은 친구들과도 좋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하이든의 아버지는 깊은 신앙심과 정직한 성품을 지녔으며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다[11]. 당시 그의 직업은 가난한 바퀴 수리공이었지만 오래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한 돈으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집과 농지를 위한 땅을 살 수 있었으며 이후에는 그의 충실함과 청렴함을 인정받아 마을 사람들로 부터 시장을 관리하는 행정관으로 추대되는 명예도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하이든은 아버지로부터 좋은 성품과 선한 영향력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릴 적부터 나타난 음악성과 유쾌함으로 그의 내면의 인격이 다져지게 되었다.

하이든의 인생에도 어려운 시련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 이전에 그는 이미 그의 아버지로부터 다듬어진 성숙한 내면의 인격이 있었고, 이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어린 시절, 하이든은 음악 수업을 위해 가혹한 체벌을 받지만, 끝까지 꺾이지 않고 버티며 음악에 몰두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하이든의 책임 있는 성품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일과는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미사 예배에 참여하고 점심식사 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이후에 주어진 시간은 과제와 음악 공부에 매진해야 하는 힘든 일과였다[12]. 또한, 빈(Wien)의 성 스테판 성당(St. Stephen Cathedral)의 합창단원으로 입단을 했지만 늘 굶주린 삶을 살게 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재치 있는 유머 감각과 친절한 성품 때문에 동료로부터 귀감을 얻게 되고 그에게 맡겨진 본분도 성실하게 감당하였다[13]. 변성기 때문에 합창단원을 그만 둔 하이든은 낮에는 거리의 악단으로 공연을 하고 저녁에는 음악 교습을 하며 외롭고 가난한 무명 음악인으로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힘든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이든의 모습은 위기를 기

회로 삼는 성숙함과 긍정적인 자아를 가졌다고 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그의 인격을 다지는 존중, 신뢰, 책임, 배려의 인품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14].

하이든의 인품으로 인해 당시 사람들은 하이든을 ‘과파 하이든’이라고 불렀다. ‘아버지 하이든’이라는 별명답게 그는 아래로는 단원들을 보듬었고 분쟁과 갈등 속에서는 지혜로운 중재자의 역할을 하였으며, 위로는 귀족들과 성실한 신뢰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면서 단원들의 복지의 문제까지 책임졌다. 이는 하이든의 성품에서 심미성의 요소를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자신에게 속한 공동체와 삶을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드는 탁월한 인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2.5 하이든과 음악

고전 시대의 음악가들은 단지 작곡가로서뿐 아니라 자신이 쓴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단원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육자였으며, 또 그 곡을 직접 지휘도 해야 하는 지휘자였다. 이 시대 궁정악장은 한마디로 이러한 3가지 영역의 재능을 골고루 갖추어야 하는 종합예술인 이었다.

무에서 율을 창조하는 작업인 작곡의 일은 영감이 없이 악상이 떠오르기는 어려워서 일상의 삶에서 느끼는 희로애락이 음악 창작 작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면에서 하이든은 먼저 삶으로 음악을 대하였는데 그가 삶에서 겪은 일들은 기쁨보다 슬픔, 환희보다 절망에 가까운 삶이었지만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음악이었다. 음악은 단지 듣는 것만으로도 내면세계의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이는 음악이 인간에게 신체적, 심리적 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15]. 실제로 하이든은 단지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음악을 창조하는 작곡가로서 음악이 주는 깊은 영감과 이로인한 점들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음악을 통하여 그는 어려운 시기마다 마음을 다스리며 곳곳이 다시 일어 설 수 있었던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대학의 1학년에서 4학년 학생들 중 교양 선택 과목으

로 ‘음악의 이해’를 수강하는 학생 100명으로 하였다.

3.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연구도구는 임소현(2015)의 KDI 인성 검사지를 대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각 문항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역별 학습자의 인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 검사는 하이든의 생애와 음악을 활용한 인성교육을 위한 수업 활동 후 사전 방법과 동일하게 검사지를 통해 진행하였다. 문항의 신뢰도 측정 결과 Cronbach's α 가 .88로 신뢰도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Table 1. Reliability

Items	Question No.	Cronbach's α
Kindness, Tolerance	2, 6, 9, 19	.68
Responsibility, Trust.	3, 10, 14, 16	.69
Love Consideration.	4, 8, 10, 11,	.74
Leadership	1, 5, 12, 15	.60
Community spirit	7, 13, 17, 18	.67
Total	20	.88

연구도구로 사용한 설문지 구성은 친절과 인내, 책임과 신뢰, 사랑과 배려, 리더십, 그리고 공동체 정신으로 크게 5개 항목으로 구성이 된다. 친절과 인내에 관한 설문 내용의 예시로는 팀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내생각과 다른 의견에 끝까지 참고 듣는다. 책임과 신뢰에 관한 내용으로는 팀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내가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진다. 사랑과 배려에 관한 설문 내용으로는 팀원과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타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리더십에 관한 항목에 대한 내용으로는 팀 활동에서 리더로서 책임을 지는 것을 피하지 않는다. 팀원들은 내 의견을 중요시 생각한다. 그리고 공동체 정신에 관한 내용으로는 여러 사람이 협력할 때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등 총 20 문항으로 구성된다.

3.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를 위해 SPSS 15.0을 이용하였고, 동일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한 대응표본 t검증 (paired t test)을 실시하였다.

3.4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사전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수업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시한 후 학기말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업활동은 한 학기 총 15주 동안 중간고사 이전 3번 중간고사 이후 3번 총 6회 실시했고 주차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 1차시: 하이든의 어린 시절, 2차시: 긍정 악장 하이든, 3차시: 니콜라우스 1세와 하이든, 4차시: 하이든의 시련, 5차시: 하이든의 인성, 6차시: 하이든의 음악 등으로 구성된다.

하이든의 삶의 이해와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을 위한 수업활동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수업의 도입에서는 동기 유발 단계로 고별교향곡 음악 감상하기, 수업의 전개에서는 고별교향곡을 통해 느낀 점 토의하고 가장 감동적인 부분기억하기, 그리고 감동적인 부분들을 통해 내 삶을 들여다보기, 소그룹 활동을 통해 자기의 경험 이야기나누기, 수업 마무리에서 소그룹 구성원 중 가장 감동적인 일화를 추천하고 전체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기. 과제는 소그룹별로 발표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과제함에 올리기 등으로 구성된다.

4. 연구결과

4.1 인성교육 덕목의 인식의 변화

하이든의 생애의 전반적인 이해와 수업활동 속에서의 그의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 실시 이전인 사전 검사와 그리고 이후의 사후 검사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01$)를 가져왔다(Table 2). d연구대상은 총 100명이었으나 검사에 응하지 않은 대상 및 데이터 오류를 제외한 77명의 응답만을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Table 2. Changes in Perception of Character Education.

	test	N	M	SD	t
Character	pre	77	3.656	.5644	-.823
	post	77	4.343	.4737	7.098***

*** $p < .001$, ** $p < .01$, * $p < .05$

4.2 인성교육 덕목의 하위영역 인식의 변화

분석 결과 가장 유의미하게 나온 항목은 친절과 관용 항목으로 인성교육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Table 3).

Table 3.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Kindness and Tolerance.

	test	N	M	SD	t
Kindness Tolerance	pre	77	3.746	.6561	.023
	post	77	4.362	.5672	5.326***

*** $p < .001$, ** $p < .01$, * $p < .05$

하위영역 중 책임, 신뢰 항목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고 사전 사후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01$).

Table 4.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Responsibility and Trust.

	test	N	M	SD	t
Responsibility Trust	pre	77	3.448	.6278	-1.545
	post	77	4.322	.5632	6.556***

*** $p < .001$, ** $p < .01$, * $p < .05$

하위영역 중에서 사랑, 배려 항목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고 사전 사후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01$).

Table 5.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Love and Consideration.

	test	N	M	SD	t
Love Consideration	pre	77	3.678	.7278	-1.765
	post	77	4.222	.4632	4.126***

*** $p < .001$, ** $p < .01$, * $p < .05$

하위영역 중 리더십 항목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6과 같고 사전 사후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Table 6.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Leadership.

	test	N	M	SD	t
Leadership	pre	77	4.070	.7001	.256
	post	77	4.492	.5422	4.586***

*** $p < .001$, ** $p < .01$, * $p < .05$

하위영역 중 공동체의식 항목의 분석 결과 역시 사후 결과가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p < 0.01$).

Table 7.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Community spirit.

	test	N	M	SD	t
Community spirit	pre	77	3.787	.6971	.217
	post	77	4.478	.5042	5.486***

***p<.001, **p<.01, *p<.05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4차 혁명시대를 맞이하면서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그 중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는 ‘인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성교육의 다양한 방법 중 작곡가 하이든의 삶과 그의 음악을 통한 교수방법의 접근과 수업활동으로 인성덕목의 인식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연구 가설과 인성 덕목의 하위요소들의 사전 사후 인식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인성교육 덕목 전체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p<0.01)를 가져왔고 인성덕목의 하위 요소인 친절, 관용, 책임, 신뢰, 사랑, 배려, 지도력 그리고 공동체의식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p<0.01)를 가져왔다.

따라서 교과서 위주의 이론 중심의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한 작곡가의 삶을 이해하고 그의 음악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수업은 인성덕목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으며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에도 효과적인 인식을 가져올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가 보다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인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교수자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론적 지식 전달에만 익숙한 교수자들의 입장에서 교과와 접목시킨 인성교육의 실천이 다소 막막했다. 따라서 교과 활동과 접목된 인성교육의 사례 교류나 세미나 등의 다양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의 결과는 A대학의 교양선택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70여명에 국한된 결과 이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앞으로 보다 광범위한 실험집단을 통한 심화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S. Y. Ko & H. G. Baek. (2012). A Study on Design of Ontologies for Wounded Heart Healing.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0(11), 641-649. DOI : G704-002010.2012.10.11.055
- [2] S. J. Chung & J. H. Bae. (2020). The Educational analysis of Character Education in Korea & Civic Education. *The Journal of Society for Humanities Studies in East Asia*, 52, 249-285. DOI : 10.52639/JEAH.2020.09.52.249
- [3] S. H. Hong. (2016). Between Aesthetics of Feeling and Absolute Music - Schopenhauers Philosophy of Music.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139, 265-313. DOI : 10.20293/jokps.2016.139.265
- [4] F. Amri, E. T. Djatmika, H. Wahyono & S. U. M. Widjaja. (2020). The Effect of using Simulation on Developing Students' Character Education in Learning Economics. *International Journal of Instruction*, 13(4), 375-392. DOI : 10.29333/iji.2020.13424a
- [5] Z. Cubukcu. (2012). The Effect of Hidden Curriculum on Character Education Process of Primary School Students. *Educational Sciences: Theory & Practice*, 12(2), 1526-1534.
- [6] S. W. Yoon. (2019). *Music Education Theory*. Seoul: WithBook.
- [7] S. H. Jung, H. K. Yeom, E. H. Park & H. J. Jung. (201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usic Course Model for Creative and Personality Education based on Core Competencies*. Seoul: Korea Science Creative Foundation.
- [8] M. S. Kim & H. I. Kwon. (2014). A Study on the Character Elements in Music Subject. *Music Education Study*, 43(2), 21-40. DOI : G704-001377.2014.43.1.007
- [9] J. H. So. (2019). Possibility of personality education through cultural music classes. *The Korean Association of General Education*, 165-170.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76325>
- [10] H. Y. Wicaksono. (2019). Weak of Effects of Music Educ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Characters. *Journal of Arts Research and Education*, 19(2), 172-178. DOI : 10.15294/harmonia.v19i2.23623
- [11] P. D. Townsend. (2013). *Joseph Hayd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2] Y. S. Cho. (2014). The Tendency of Haydn's Works and its Meaning during Working for Esterhazy Family. *Music Criticism*, 32, 39-80. DOI : G704-001468.2014.32.009
- [13] D. W. Jones. (2009). *The Life of Hayd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4] J. W. Kim. (2015). Efficacy Analysis of Developed

Course for Promoting Character Education with Women's University Students,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3(11), 481-491.
DOI : 10.14400/JDC.2015.13.11.481

- [15] E. Osmanoglu & H. Yilmaz. (2019). The Effect of Classical Music on Anxiety and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International Education Studies*, 12(11), 18-25.
DOI : 10.5539/ies.v12n11p18

오 세 홍(Sehong Oh)

[정회원]



- 2005년 2월 : 영남대학교 (음악학사)
- 2015년 5월 : Eastern Illinois University (합창지휘석사)
- 2018년 8월 : The University of Arizona (합창지휘박사)
- 2020년 9월 ~ 현재 : 한남대학교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강의전담조교수

- 관심분야 : 음악학, 인성교육, 지휘
- E-Mail : kingbossam@hnu.kr